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송바우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 - 528
----------	---------

제출년월일 : 2024. 9. 3.

발 의 자 : 송바우나, 박태순, 박은정,  
황은화, 이대구, 유재수,  
최진호, 설호영, 이진분,  
이혜경, 한갑수, 이지화,  
김진숙, 최찬규, 박은경,  
김유숙, 선현우, 현옥순,  
한명훈, 김재국 의원(20인)

## 1. 주 문

- 안산시민의 숙원 사업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건의함.

## 2. 제안이유

-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철도를 건설하여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 없이 최대 100km로 운행하는 4조 3,055억원의 광역철도 사업임.
- 신안산선 개통 시 한양대역에서 여의도는 25분, 원시역에서 여의도는 36분 소요되어 안산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이동시간이 기존대비 약 50~75% 이상 대폭 단축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안산시민의 교통여건의 획기적인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44.7km의 노선과 정거장 19개소를 신설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으로 2019년 9월 9일, 안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안산시청에서 착공식을 가지고 2025년 4월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였음.
- 2024년 7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개통이 예정된 신안산선의 전체 공사 공정률은 불과 개통 1년 앞둔 2024년 5월말 기준 39%에 머물고 있음을 보고함.
-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적기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올해 초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과 협의한 결과, 무려 20개월을 연장하기로 함. 이로 인해 신안산선은 2026년 12월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짐.
- 이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2025년 4월 개통이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렀음. 사업시행자가 모든 계약상의 기본인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함.
- 이는 개통을 기대하는 72만 안산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개통에 대한 희망고문을 하며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과 사과하는 방안은 확인 할 수 없었다.
-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경기 서남부 주민들이 여유로운 아침과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신안산선 적기개통을 촉구함.

### 3. 참고사항

-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철도를 건설하여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 없이 시간당 최대 100km로 운행하는 총 사업비 4조 3,055억의 광역철도 사업이다.

신안산선 개통 시 한양대역에서 여의도는 25분, 원시역에서 여의도는 36분 소요되는 등 안산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대비 약 50~75% 이상 대폭 단축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안산시민의 교통여건의 획기적인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경기도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44.7km의 노선과 정거장 19개소를 신설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으로 2019년 9월 9일, 안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안산시청에서 착공식을 가지고 2025년 4월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2024년 7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결과, 국토교통부는 불과 개통을 1년 앞둔 신안산선의 공정률은 2024년 5월말 기준 39%에 머물고 있는 사황을 보고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적기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올해 초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과 협의한 결과, 공사기간을 무려 20개월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신안산선은 2026년 12월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공사가 당초 계획인 2025년 4월 개통보다 20개월 이상 늦어지게 되었고 이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계약상의 기본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개통 지연에 따른 사유나 그 어떤 안내도 없었기에 정상적인 개통을 기대하고 있는 72만 안산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개통 시기 연기에 따른 모든 피해는 온전히 안산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경기 서남부 주민들이 여유로운 아침과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적기 개통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안산시민의 염원인 신안산선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하고 건설 공정관리에 적극 개입·조정 하라

하나. 국회는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부실관리와 늑장 대처에 대한 건설 공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라

2024. 9. 12.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